

유사휘발유, 규제조치 효과없나?

2008년 이후 적발건수 증가추세 ...SK주유소 상표가 536건으로 최대

유사휘발유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1만1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식경제부가 10월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영희(미래희망연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유사석유제품을 단속한 결과 적발된 유사휘발유 판매 건수는 모두 1만1874건으로 나타났다.

2008년 3981건에서 2009년 5394건으로 급증했으며 2010년 상반기에는 1959건을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SK주유소가 536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오일뱅크(345건), GS칼텍스(323건), S-Oil(301건) 순이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0/04>